

#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13회, 고린도후서 12장, 어리석은 자랑과 천상의 환상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3, 고린도후서 12, 어리석은 자랑과 천상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12장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지난 세션에서 전체 섹션이 12장 1절에서 시작하여 10절까지 이어진다고 말했음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 자랑이 담긴 섹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11장에서 그것을 살펴보았고 , 결국 사도의 자격 증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특별한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바울이 침입자들과 맞설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전 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자랑을 계속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여러 곳에서 은혜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고난과 끊임없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환상과 계시의 주제에 대한 서론으로 그의 어리석음의 자랑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 그러므로 이 장은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자랑과 천상의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무의식적으로 자랑해야 하는 상황에 의해 강요된 자랑은 유익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겪은 고난에 대한 설명에서 그에게 허락된 천상의 경험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러한 경험이 그의 반대자들의 자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장, 특히 1~6절에서 바울은 그의 위대한 황홀한 경험과 계시를 아이러니하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서둘러 탈출한 그의 큰 굴욕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는 바구니에 이끌려 내려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 바구니가 얼마나 컸는지, 아니면 바울 자신이 얼마나 작았는지 궁금합니다.

보시다시피, 바구니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아니면 풀은 실제로 크지 않았습니니다. 글쎄요, 어쩌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풀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에 관련된 굴욕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그는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후에, 그는 이 계시를 봅니다. 계시 후에, 그는 육체의 가시, 그의 육체의 가시에 의해 드러난 그의 풀리지 않는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듯이, 기록의 요점은 바울이 사도로서 가진 힘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위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1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0절 사이에 주목할 만하고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3인칭으로 묘사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7절에서 10절까지를 1인칭으로 나, 나, 나의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여 서술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첫 번째 서술은 매우 모호합니다. 바울이 말할 수 없는 모호한 묘사입니다.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구체적인 선언이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니까, 1~6장과 7~10장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바울의 수사적 의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가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인들 앞에서 그의 반대자들의 자랑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침입자들이 바울의 가시 때문에 더욱 자랑스러워하는가? 아니면 바울의 가시 때문에 그를 조롱하는가? 그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바울은 상처받은 치유자의 역할을 하는 듯하다. 그 자신은 치유자이지만, 그는 상처받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았지만, 그 자신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사도는 자랑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계속 자랑해야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매우 조심조심 합니다. 알다시피, 신약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비인칭 동사 *dei*는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반대자들과 교회는 그에게 대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자랑해야 하지만, 그는 내가 자랑한다면 실제로 얻을 것이 없다고 재빨리 덧붙입니다. 그것은 이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 바울은 그런 다음 재빨리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해석적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 특정 장소에서 제기된 해석적 질문 중 하나는 주님의 소유격의 힘입니다. 그것은 계시의 근원이 주님에게서 온 것임을 나타내는 주관적 소유격인가, 아니면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주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객관적 소유격인가?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그 질문을 열어둡니다. 저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런 모호함이 남을 뿐입니다. 그럼 풀은 둘 다 또는 둘 중 하나를 의미할까요? 결정하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가 둘 다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이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주된 초점은 계시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제가 주님에게서 온 것인지 주님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것이든, 주님에게서 온 것이든, 그는 여전히 그의 반대자들이 받은 계시를 넘어서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목적적 소유격에 대한 주장은 묵시록 뒤에 소유격이 오는 다른 경우를 지적합니다. 바울이 개종할 당시의 계시가 한 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소유격을 주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 말은, 우리는 그냥 그걸 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그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상과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환상은 계시입니다. 후자는 더 광범위한 용어이고, 더 중요한 단어이며, 환상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든 환상이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계시가 환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환상이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계시가 환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2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랄프 마틴은 환상이 계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단수 명사 계시는 바울에게 그의 부름과 사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2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종말론적 사건으로, 시대의 끝이 바뀌거나 밝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시록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하나의 경험만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거나 주제적인 힘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종의 주저함과 함께 이제 황홀한 경험에 대해 말합니다.

고린도에서 고린도인들은 보통 그러한 현현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이 영의 은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경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계시적 만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그의 경험과 더 일관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는 매우 주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특별한 종교적 경험에 대해 말하는 데 있어서의 침묵이나 주저함은 우리에게 교훈적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주장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자랑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에 대한 검증으로서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에 대한 검증으로서는 무관합니다. 저는 생각 속의, 즉, 대다수의 세계에서, 글썄요, 이게 그가 저에게 제시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사역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는 목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나이지리아에 있는 특정한 목사를 알고 있는데,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연히 그를 위해 통역을 했는데, 그는 율법이 그에게 뱀을 제시했다고 말했고, 그는 뱀을 보았고, 그것이 그의 사역의 시작이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어떻게 통역했는지 묻고 싶을 겁니다.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래서 그의 교회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그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온 이후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가 약 15분 동안 말하게 했고, 그래서 저는 그를 위해 통역했습니다. 그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가 뱀을 보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의 사역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다른 계시를 내놓고 그것을 자신의 사역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조심스럽고, 가능한 한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종교적 경험을 얹잡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는 항상 그것을 적절한 관점과 균형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극단은 신자들이 더 이상 환상도 계시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은 다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또 다른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종교적 경험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적절한 관점과 균형으로 유지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황홀한 경험과 감정적 표현의 기준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지,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는지 여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다음 2절에서 4절은 하늘 여행에 대한 두 가지 평행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제 말은, 2절과 3~4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 개의 별개의 기록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보고를 유대인 묵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휴거에 대한 기록처럼 단지 허구적인 문학적 구성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 여행과 치유의 기적에 대한 자기 패러디로 여긴다. 하지만 바울이 하는 것은 그의 경쟁자들의 터무니없는 허세를 폭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그것이 사도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종교적 경험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라고 판단한다.

그의 경험 외에는 이해할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이 이야기에서 바울은 이 순서대로 말합니다. 관련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때는 14년 전입니다. 몸 안이나 몸 밖 상황은 모릅니다. 그 목적지는 제3천에 끌려갑니다.

그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14년 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제3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압니다.

그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신성한 현존 안에서 은혜로운 순간에 압도된 인간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저는 이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7~10절에서 1인칭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안다”고 말하고, 그가 3인칭으로 말하는 이유가 궁금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식으로 묘사했을 뿐입니다.

그런 다음 14년 전에 14년 동안의 사건을 이전에 언급된 사건과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서기 43년경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활동하던 동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아마도 오랜 침묵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그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할 이유가 없어서 침묵을 지켰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겪은 모든 경험을 자랑하고 있으니, 나도 환상과 계시를 봤지만, 그들이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이것은 바울이 여전히 거짓 사도들을 어리석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의 경험의 상황에는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는 몸 안에서인지 몸 밖에서인지, 나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또한 다양한 해석적 판단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무지함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또는 세 번째 하늘로 옮겨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환상적 경험이었는가, 아니면 그의 몸이 낙원으로 옮겨졌는가? 그는 오직 신만이 안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왜 그렇게 간략하고 수수께끼 같은 설명을 했는지는 추측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그가 너무 많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조용히 있었고, 그걸로 끝났고, 저는 때때로 우리 신자들이 성경이 끝나는 지점에서 멈추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부이고, 그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으므로, 그냥 "알았어, 바울아, 바울 자신이 모른다고 했다면, 글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는 셋째 하늘로 들어 올려졌어."라고 놔둡니다.

제 말은, 다른 사람이 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학적 수동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신이 하는 일이에요. 신은 이름 없는 행위자예요.

바울은 갑자기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었고, 재빨리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으며, 여기서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절에서 한 번만 낱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는 반복으로 강화된 동일한 계시를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것이 몸 안인지 몸 밖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세 번째 하늘이나 낙원으로 끌려갔습니다(2절과 4절). 거기서 그는 반복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에 대한 설명을 중단하고 이 사람의 경험을 자랑할 것이지만, 자신의 약점 외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어하더라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고, 진실을 말할지라도 그는 천국으로의 승천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더 높이 평가하거나 그의 행동에서 보는 것 또는 그에게서 듣는 것으로 인해 이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불행히도 바울, 불행히도 말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바울은 21세기의 많은 설교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목사로서의 인정이 자기 칭찬, 지지 또는 다른 세상적이고 황홀한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의 삶과 사역의 관찰 가능한 사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그의 순종과 신실함에 따라 그를 평가하기를 원하며, 그의 난해한 경험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분열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의 가장 겸손한 경험 중 하나인, 사탄의 사자가 끊임없이 그에게 어울리는 육체에 계속되는 가시에 대한 이유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육체에 가시를 받았으니 자랑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가시는 그를 너무 화나게 해서 제거해 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거듭거듭 요청한 것에 대해 꾸지람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죠,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한 번만 믿으면 충분하죠. 글썄요, 하느님은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물었고, 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했지만, 그 응답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거듭거듭 구하는 것을 꾸지람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답을 느낀 후로는 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의 요청은 거부되었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요청은 거부되었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쁨이 충만해질 때까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고 약함에 대한 그의 힘에 의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구나. 바울은 고난과 주님의 부인을 통해 가시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그를 겸손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 번이나 그것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이 높여지자. 그것은 그가 누구이고 무엇이며 얼마나 주님께 의존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시가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주께서 그를 통해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는 상태에 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그의 뜻이 그에게 충분하며 그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완전해진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은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봉사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살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그분의 열매 맺음을 방해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즐깁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게 묻기를 기다리고 있는 질문은 바울의 육체에 박힌 가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는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는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썼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가 눈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관련된 다른 것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던 것, 만일 너희가 백성 가운데서 결혼한다면 너희 살에는 가시가 있고 너희 눈에는 엉겅퀴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바울이 믿지 않는 아내를 두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고, 그것은 여호수아의 성취이다. 그것도 추측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폴이 내가 미쳤다면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정신적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육체의 가시에 대해 아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러니 내가 아는 것을 말해주겠다.

첫째, 신은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신은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신은 어디에도 신자들에게 천국으로의 순조로운 도피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현실적이거나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가시나 역경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냅니다.

때때로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성격을 그리스도와 더 비슷한 이미지로 형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 자신의 업적과 발전을 칭찬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즉시 다윗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좋으므로 당신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두 번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련은 우리의 자아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시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가시는 과거나 현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바울이 회심 전의 삶, 신자들에 대한 박해, 또는 현재의 삶 속의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 다시 벌하지 않으십니다. 네, 인정하건대,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개종하기 전에, 무언가를 했고, 그 결과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하고, 한 손을 절단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거나 거듭난 후에 갑자기 두 번째 손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 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며, 당신은 그저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시는 과거나 현재의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게 제가 가시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신은 가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역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는 바를 드러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다른 때는 그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분을 완전히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함이나 하나님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제가 가시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시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원하시면 가시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 하느님은 가시를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에 있는 가시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입니다.

이제 바울은 11절에서 21절까지 거기서 벗어나 칭찬과 신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그는 "나는 어리석어졌노라. 너희가 나를 강요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사도의 표징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끈기로 행해졌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은 것 외에는 다른 교회들보다 여러분이 열등하게 대우받은 것은 어떤 면입니까? 이 생각의 시간 동안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것을 찾지 않고 여러분을 찾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 저축할 책임이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저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고, 나도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면, 나는 덜 사랑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활한 놈이어서, 속임수로 당신을 속였습니다. 물론, 내가 당신에게 보낸 사람들 중 누구를 통해서도 당신을 이용하지 않았지요? 나는 모든 직함을 가지고 있고, 그와 함께 형제를 보냅니다. 직함은 당신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랬는가? 우리가 같은 영으로 행하고 같은 발걸음으로 걷지 않았는가? 이제까지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변호한다고 생각해왔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이며, 모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갈 때, 혹시 여러분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까 두렵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바라는 바와 다르다고 여겨질지도 모르니, 혹시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중상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소동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고, 과거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행한 더러움과 음행과 음탕함을 애통하게 할까 두렵구나.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자랑한 것을 다시 사과할 뻔했다.

그는 말했다, 글썄,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한 거야. 고린도인들은 그를 칭찬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사도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를 아주 잘 알았지만, 그들은 그의 비평가들의 말을 듣고, 그들 중 일부는 그의 비평가들을 따름으로써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고린도인들이 그의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을 칭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13절에서 그들을 열등하게 대했다면 용서를 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세 번째로 방문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독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바울이 그들의 돈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지 않는 이전의 재정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이것입니다. 그는 적들의 거짓 비난을 침묵시키고 싶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의 순수함과 그들의 영적 안녕을 증진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런 다음, 15절에서, 그는 아버지적 경건한 사랑에 이끌려, 그들을 위해 매우 기꺼이 돈을 쓰고, 자신도 돈을 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인들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의 그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바울을 덜 사랑할수록, 바울은 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독자들에게 대한 그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그는 기꺼이 자기 박탈의 규율과 자신의 길을 스스로 벌어들이는 규율을 강요하는데, 이는 그가 스스로 시작한 재정 정책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몸과 영혼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덜 가지고 지내야 하고 더 많이 손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고린도에서 그의 영적 자녀들을 교화하고 양육하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 정신이 그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가난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부유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릅니다.

바울의 동기의 순수성과 그의 행동의 적절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기록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가 16절에서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적들이 속삭이는 악의적인 거짓말은 이것이지만, 그것이 고린도인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교활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붙잡았습니다.

의심치 않던 고린도인들은 예루살렘을 위해 헌금을 모으는 데 동의함으로써 그의 미끼를 물었고, 그 돈을 자기가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사도는 독자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보낸 사람을 이용해 그들을 이용했는지 물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같은 정신과 발걸음으로 걸으며, 같은 동기와 절차로 행동하지 않았는가? 사실을 검토하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성실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왜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지 오해하고 있는가? 그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그가 적들의 거짓 비난에 대답하고 사도직을 옹호할 때 자신을 변명하거나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19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주님의 사도이며 청지기 직분에 대해 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들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의 이미지가 그의 반대자들의 거짓말과 은유로 인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의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의 사도직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회복될 때에만 그는 그들을 확실한 파멸에서 구출할 수 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모든 것을 그들의 교화를 위해 한다고 확신시킨 후, 경고와 호소로 사도적 근력을 과시합니다. 그는 고린도에 갈 때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영적 상태에 있지 않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기분에 있지 않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는 다툼, 질투, 중상모략, 악, 수군거림을 발견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즉, 그는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애통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갈 무렵,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자랑했을 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모든 일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Ayo Adewuya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고린도후서 12, 어리석은 자랑과 천상의 환상입니다.